

인·간·르·포· 최옥선記者입니다

평민당 부총재

박영숙

청치마를 즐겨 입고 165cm의 훔출한 키에 넉넉한 히프를 가졌다.
학교 다닐 때는 맹렬여대생으로, 37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밖에 모르는 올드미스로, 결혼한 이후로는 민주화운동, 여성운동의
최전선주자로 달려온 박영숙. 그가 거칠기로 소문난 정치판에
신데렐라처럼 나타났다. 여성정치인을 손꼽을 수 없는 이 나라 정치
무대에서 그의 정치력은 어떻게 구사될 것인가



2004년 08-6



무슨 일이든 열성과 청치마의 일하는 여성

아이를 갖기 전 남편 안병무박사는 아내를 ‘영숙아’하고 불렀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로는 ‘엄마’라고 부른다. 그것은 아내에게서 ‘엄마’냄새가 나지 않아 그렇게 자꾸 불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다닐 때는 맹렬여대생으로 37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밖에 모르는 올드미스로 결혼한 이후로는 민주화운동, 여성운동의 최전선주자로 달려온 박영숙. 그는 자신의 분위기를 ‘사무적’이라고 표현했다. 우선 말의 속도가 빠르다.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해오면서 받아적기에는 이력이 난 기자에게도 그의 말은 쫓기가 힘들었다. 그 다음은 그의 말 걸음이 빠르다. 잠시도 노긋하게 한 자리에 앉아있을 새가 없이 집에서도 당사에서도 그의 말은 어디론가 같길 바쁘다. 그의 전화통화 모습

은 어떤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들으면 반가울 만큼 그는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 구호에 철저하다. 심지어 다정한 친구들은 그에게 전화 걸기를 싫어도 한단데 그 까닭은 자분자분하게 세상사 정담을 늘어놓고 싶어하는 그들과 의기투합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햇살 좋은날 온돌방의 낮으막하게 넓은 창가에 앉아 한가롭게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이 소원인 여자. 그가 아내, 엄마, 국회의원, 제1야당의 부총재, 여성운동을 겸해야 하는 오늘날의 박영숙이다.

165cm의 훔칠한 키에 중년여인들이 그러하듯 허리와 허프가 적당히 넉넉한 몸매이다. 60년대식의 다소 깡충한 스커트와 블라우스의 정장차림. 딱이 세련된 분위기가 아니라도 온몸에 자신감이 느껴진다.

정당에 들어오기 전 그의 옷차림에는 18번이 있었다. 청치마에 블라우스 그 위에 스웨터를 걸친다. 늘

정치한답시고 나선 다음부터는 잔디 돌보는 일은 저 사람이 한적이 없어. 이렇게 사진찍는 것도 매스컴의 거짓 아닌가. 안병무박사가 잘못게(?) 아내를 공격?

현장에서 뛰는 그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옷은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는 지난해 8월 남편 안병무박사의 정년 퇴임식에도 늘 입던 대로 청치마에 스웨터를 걸치고 갔다.

“정당에 들어오기 전 이태영박사를 찾아가 의논을 드렸더니 입당하면 정장을 해라, 하는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갑작스런 일이라 옷을 맞추는 시간도 없어 예전에 입던 옷들의 품을 고쳐서 입었어요. 여름옷은 늘일 것도 없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맞추어야겠네요”

46세 독신주의자와 37세 올드미스의 결혼

박영숙의 남편된 안병무박사는 원래 독신주의자였다. 그 시대에 마흔 여섯까지 고수된 독신의 배경으로 어떤 결핍이나 무능을 연상해서는

안된다. 그의 ‘주의’는 그의 삶의 뿌리가 된 신앙에 기초한 것으로 ‘예수처럼 살겠다’하는 순수 청년의 자기 선언이었다. 단벌옷에 맨발로 다녔고 어머니에게는 집에 가구를 들이지 못하게 했다. 지금도 일체 하지 않았다.

킬케골에 탐닉되어 있는 실존주의자 안병무에게 있어 결혼이란 바로 이기심의 집합체였다. 이런 결혼부정론과 함께 안병무는 분위기있는 외모와 독일 본토에서 인정받는 실력있는 철학자로 못 여성들에게 설레임의 대상이었음도 물론이다. ‘별난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이 맨발의

한다.

그 이후의 데이트 이야기는 모든 남녀들의 스토리와 다를 바 없으나 문제는 안병무교수가 데이트로 끝내지 않고 이른바 ‘이념’을 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는데 있다.

한강 백사장으로 박영숙을 불러내 중년의 이 독신주의 남자는 느닷없는 청혼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유암선고를 받고 수술하셨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아들 둘 봐줄 며느리를 보셔야겠다는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결

혼을 안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긴데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함께 살되 독신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결혼을 전제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안박사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박부총재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가 각자의 세계에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결혼목적였다.

“지금도 나는 결혼 안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

▲ 제1야당이 된 다음 윤길중 민정당 대표의원이 평민당을 방문했을 때 김대중총재와 함께

▼당원들에게 그날그날 시사각각 일어나는 긴급사항들을 보고받는다.



독신주의자를 행복시킨 여인도 결혼에는 다소 둔감한 37세의 올드미스였다.

당시 YWCA총무로 일하던 박영숙은 이미 대학사회에서 인기가 높던 안병무교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Y에서는 2년에 한번 여름에 전국대회를 갖는데 이때 성서연구지도자로 안병무교수를 초빙한 것이다. 에 대해 후에 주변사람들은 박총무가 안병무교수를 꼬시려고(?) 일부러 Y대회에 강사로 초빙했다는 얘기도 했다. 그에 반해 박총무가 부탁한 강의는 새벽 7시인데 두세 시까지 공부하는 안병무교수에게 새벽7시는 한밤중인데도 그가 선뜻 응락했다는 것은 무슨 저의(?)냐 하는 분석도

**소위 사회활동을 하고
공당의 부총재로 수많은
지지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대요...’
하는 표현방법은 자못
유치해 보여야 할 텐데
그에게는 신선함이 된다.
그것은 남편 안병무박사가
말로 박영숙부총재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동을 거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금 불행하다는 뜻은 아니고. 기형이나 변태였을지도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심화되었을 겁니다. 가끔 내가 상식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에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무작정 집을 뛰쳐나갑니다”

결혼 전부터 그는 한번 집을 나 가면 몇달이고 떠돌며 밥을 혼자 해먹고, 주막집에서 막걸리로 때우며 농민들이나 빈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곤 했다. 이럴 때는 가족에게조차도 거처를 알리지 않는다.

“결혼 초에는 저분의 느닷없는 가출에 많이 당황했지요. 혹시 나에 대한 불만인가, 내가 뭐 안씨집안에 잘 못한 것이라도 있나 하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이

제 워낙 그런 분이다, 하고 소문이 나서 괜찮아요”

현재 서울대 2학년에 재학중인 이들 부부의 외아들 재권군은 어머니의 정치활동에 가장 예리한 비판자이기도.

대통령선거중 어머니가 김대중씨를 지원유세하고 다니는 한편에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민중후보 백기완씨의 운동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가끔은 어머니에게 이왕

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여러 군데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하세요...’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방법은 기혼여성들에게 아주 보편적이고 흔해빠진 표현인데 유독 그에게서는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소위 사회활동을 하고 공당의 부총재로 수많은 지지국민의 시선을 받는 정치인이 ‘우리 아빠 어찌구...’하는 모습이 유치해 보여야 할 텐데 그보다는 남편에 대한 그의 존경

남편 안병무박사가 같은 명동사건으로 김대중씨와 함께 옥고를 치르는 등 재야권에서 김대중, 이회호부부와의 인연은 오래인 셈이다. 그러나 김대중총재와는 입당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입당하자마자 그는 재야 영입케이에 대한 지분으로 대통령선거 전에는 부총재로 정신없이 뛰었다. 당초엔 6명의 부총재가 있었으나 단일 화실패로 모두 그만두고 결국 총선



정치이력이 전무한 그가 앞으로 원내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신시킬 것인지 그것이 박영숙의 정치생명을 가를 것이다.

정치를 하려면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책을 사다주고, 오늘은 얼마나 읽었느냐고 채근도 해주는 격려자이기도 하다.

박영숙이란 인물을 설명함에 있어 그의 남편을 이토록 많은 지면을 통해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기자의 무신경으로 ‘옆길’이 된 것은 아니다. 안병무박사는 박영숙의 남편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정신적 대부(代父)이자 대내외활동의 조연자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영숙부총재는 기자 앞에

심과 그 남편이야말로 이사람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도 내놓아야 하는 지역구 하기 어려웠다

박영숙부총재가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평민당이 민주화여성 단체연합회에 대표 파견요청을 해오면서. 이미 이회호여사와는 YWCA에서 일할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을 앞두고 김대중총재가 물러나자 그가 총재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정치경력이 전무한 여성을 이렇게 후대하는 것에 대해 김대중총재의 ‘배수의 진’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우선 박부총재는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 정치경력이 없고 여자라는 점이 김총재의 카리스마적 지도체제에는 안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

“재야에서 들어온 사람이 90여명인데 이들은 한결같이 자유주의자,

비권위주의자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는 사람들이죠. 저는 당내에서 어머니부총재로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당직자들도 총재에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저에게 의논해주는 일이 많습시다. 그러나 제가 만만한 쪽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눌러서 피 한방울 안나온다고 해요. 공천과정에서도 저는 철저한 원칙고수자였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특혜를 받던 당내정치와 달리 원내에 들어가면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우리집 아빠가 처음 제가 입당문제로 고민하자 이렇게 말해주시더군요. 일단 당에 몸을 담으면 조직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건더내겠느냐고. 저는 평민당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민주화운동의 연결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는 당이 외적인 탄압속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겠죠. 선거가 끝나고 설문조사가 왔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에서 의사결정에 있어 ‘당론에 따르겠느냐’ ‘개인활동을 하겠느냐’ ‘경우에 따라 따르겠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경우에 따라 따르겠다’고 3번에 답을 했는데 정당인의 정답은 ‘당론에 따른다’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항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정계의 기존 가치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내에서도 인간존중의 가치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그는 권인숙양사건의 경우를 들었다. 12대 국회에서 나이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권양과 같은 자식을 두었을 나이로 성고문사건을 충분히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정당의원들이, 검찰조사를 요구하는데 당론에 따라 한결같이 거부를 하더라는 것. 한 사람도 자기의사를 내지 못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정치현장의 기존가치관에 회의를 느꼈다.

그가 현실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고 맞은 갈등 중의 하나가 지난번 총선

에서의 지역구 출마문제. 끝내 사양하자 당내의 일각에서는 말들이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인재난인데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총재권한 대행이 종로에서 바람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재야의 프리미엄으로 들어와 너무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니냐.

‘정치생활의 출발부터가 스스로 택했다기 보다는 떠밀려들어온 꼴인데 처음부터 지구당을 하지 않겠다

다지지 못한 셈이다. 가정과 현실정치의 요구 사이에 갈등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의 정치란 아직 그의 뼈와 살과 피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정치를 자신의 몸안에 육화(肉化)시킨 직업 정치인으로 그의 평점은 어떤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박영숙이 얼마나 더 커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지금 당장에는 4년동안 의회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의 최장기 정



이집에는 국내손님은 물론 외국손님들이 늘 찾는데 주부 박영숙의 음식 해내는 솜씨와 외국어 실력이 큰 몫을 한다

는 생각이었어요. 지구당을 하자면 가정도 다 내놓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국민들의 통합실패에 대한 비판도 높는데 종로에서라도 민주당과 싸우지 말자 싶었고. 그러나 이런 유혹은 받았어요. 김명윤씨가 가족법개정의 공개적인 반대론자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싸워보고 싶었어요”

당내 일부의 강력한 지역구 출마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국구에 의해 의사당으로 가는 방법을 택했다.

이것은 재야나 여성단체 등에서 원칙론만을 고수하며 순수하게 싸워오던 그가 현실정치의 부정적인 요소들, 중상모략, 정치적 책략 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적응력을

치계획이다. 그 이상의 정치적 야심(그에게는 여성대통령이나, 여성국회의장이 될 생각은 없느냐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다)은 지금 없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안하고는 못배기는 성격이니. 그렇게 뛰다보면 자연스럽게 뭔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는다.

끝으로 그의 비정치적 평점은 이렇다. 일직 개화한 신여성으로 사회활동을 오래 했지만 술·담배 실력은 없다. 정치를 하자면 저녁에 어울리는 술자리도 많겠지만 딱이 18번 노래조차 못 고르고 있다. 혹시나 해서 요즘 아들한테 ‘아침이슬’이란 노래를 배웠는데 공연히 이 기사 때문에 노래요청 받지 않을까 몰라. **박영숙**